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사색하다



움직이는선원 대중들이 순례 출발에 앞서 '100대서원 절명상'을 올리고 있다.

이날 서봉암 주지스님과의 차담을 비롯해 도법 스님은 순례일정에 포함된 사찰마다 지리산 성지화 운동에의 동참을 당부했다.(아래)

기원하는 '100대 서원 절 명상'을 시작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생명평화의 길임을 마음에 새겨 짚을 올립니다.'

하루에 두 번 빠짐없이 올리는 절 명상이지만 일 배 일 배 올리는 모습이 경건하기 그지없다.

절 명상 이후 지원팀은 도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에게 하루 동안 길을 구간을 설명했다. 16일 걷은 구간은 동점마을에서 청학동마을까지 15km가량. 산림도로 포장으로 인해 2.5km 더 올라간 지점부터 시작해 점심은 양천사에서 해결한다.

도법 스님은 지원팀의 일정소개에 '각 방문 사찰 일정을 미리 알아 찾아야 한다'는 호통이나 호통을 내렸다.

그동안 거처는 사찰은 화엄사, 천은사, 죽림정사 등 규모있는 사찰부터 작은 암자까지 다양했다. 스님 홀로 있는 암자의 경우 오전·오후 공양 시간에 여러 스님들이 찾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서봉암을 나선 선원 대중들은 지원팀과 함께 차를 달려 전날 저녁 순례가 끝난 동점 마을로 이동했다.

지원팀이 떠난 산 입구부터 점심공양이 예정된 양천사까지 길은 오로지 스님들의 사색을 위한 공간이었다.

당초 스님들 간 거리는 10m가 넘지만 이날은 취재를 위해 거리를 좁혔다. 앞선 스님의 바람마다 걸린 '지리산의 꿈'이 찬바람에 나풀거리며 뒤따르는 도반을 이끈다.

새소리, 바람소리 등 지리산의 일체는 죽비와 목탁으로 대중을 바른 정신을 경쾌했다. 사색에 길게 잠긴 모습에 '찰라 찰라' 나오는 카메라 소리, 뛰어다니는 취재의 움직임도 조심스럽다.

1시간 가량 걸었을까. 지리산 산림도로 포장 구간이 나온다. 산림도로를 포장하던 인부들도 조



용허 인사를 올린다. 자갈길을 시멘트로 덮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지리산의 목을 죄는 듯하다. 좁디 좁은 자갈길을 시멘트를 실은 덤프러리가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자갈길도 충분한데 왜 시멘트를 덮는 것일까?'

지난 여름 내포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가야산 순환도로 추진안이 떠올랐다.

당시 수석사 스님들의 '백제미소의 길' 걷기 등을 비롯한 충남지역 불교계의 거센 반발로 순환도로건설안은 폐지되고, 숲길 트레킹 코스로 전환된 바 있다.

반나절간의 동행 이후 선원 대중들은 양천사에서 점심 공양을 먹고 오후 순례를 소화했다.

이날 순례에 대해 원묵 스님은 움직이는선원 홈페이지(www.jirisan.org) 후기에 소감을 남겼다.

원묵 스님은 "걸다가 산면을 마치 도려낸 듯 크게 깎아내는 곳을 보았다. 사람이 저렇게 큰 상처가 난다면 얼마나 아파할까? 산과 숲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원묵 스님은 이어 "하동댐을 지나는데 하동댐을 조망하는 숙박시설이 보인다. 조이랜드 **텔이라는 이름의 건물은 을씨년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개발의 미래가, 혹은 천사령 군수가 꿈꾸는 지리산 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원묵 스님은 끝으로 "거기에 그것이 있으니 그곳이 빛나고,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다 이래야 하는 거니까"라며 화두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했다.

이날 길에서 대중 스님들이 든 화두와 답은 무엇일까. 답은 지리산에 있었다.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현 기자 wanhollo@hanmail.net

“지리산을 불국토의 큰도량으로”

움직이는선원 선감 도법 스님



구랍 16일 서봉암에서 만난 도법 스님(사진)은 “불교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성장했다”며 “불교계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불교가 민주화 등을 거치며 체계적이고 세련되어진 반면 지역과 호흡하지 못함을 꼬집은 것이다. 스님은 이날 순례기간 동안 한국불교의 변화를 화두로 궁구한 답을 쏟아냈다.

-동안기 기간 지리산에서 행하는 행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자동차 등 기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패스트푸드를 먹고 현대식 건물에 살며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간 본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걷기’를 통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골과 산중의 할 일입니다. 새로운 산중 문화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리산 성지화 운동은 새로운 불교운동입니까?

“지리산 성지화 운동은 민족 모산인 지리산만큼은 불교계와 지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호흡 하자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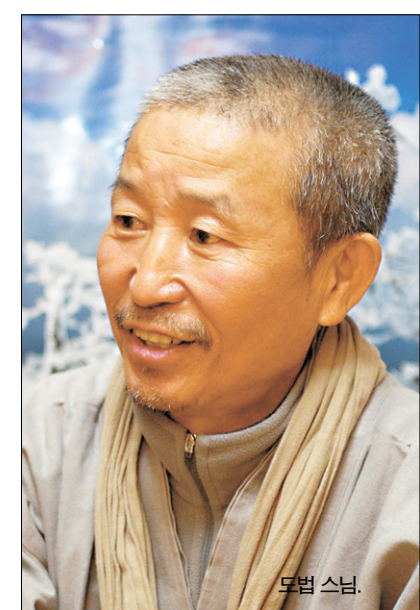
예를 들어 실상사 작은학교의 경우, 실상사는 실상사 대중 살림으로 운영이 벽차 내용적으로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찰과 스님들이 마음껏 해보라는 의미로 터를 제공하니 뜻있는 재가자들과 대중이 모여 스스로 알아서 일구었습니다.

스님들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가 변했고 다양한 능력과 뜻이 있는 재가자들이 많습니다. 스님들이 권위의식, 사심을 버리고 재가자를 믿어야 합니다.”

-사찰·출가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까?

“탁발순례 중 서울 순례 당시 빈민촌을 간직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톨릭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보았는데 공양주 없이 직접 밥하고 재봉틀로 옷을 기우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위화감을 없애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입니다.”

가톨릭의 경우 수녀 1만 3000명을 비롯해 수사 등이 2만 명을 넘습니다. 조계종은 스



님들이 1만 200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중과 어울리지 않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사찰을 관리하는 것조차 벼란 실정입니다. 스님들은 수행과 교화에 앞장서고 사찰관리 등은 전문성 있는 재가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출가와 재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제공하는 것이 스님들이 할 일입니다. 현재 불교계는 주자들이 가장 활발히 대중 활동을 펴 하는데 맡겨진 일도 많을뿐더러 절 살림하느라 바쁜 실정입니다. 총무원 등 중무행정 전반을 재가자가 관리하고 스님들은 정치와 행정을 떠나 현장에서 중생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절에 너무 의존합니다. 이래서는 불교가 침체됩니다. 자주 '위신이 없어진다' '사회 위상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긴 차담에 이어 스님은 “지리산을 다녀보니 이 일이 아니었으면 지리산 사찰을 다 둘러볼 수 있었는지 싶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좋은 생각을 가진 스님들이 많은데 한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며 “휴탄들도 모이면 더 더러운 것을 끌고 내려가는 힘이 생기고, 맑은 물도 흠어지면 물방울일 뿐”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불교로 하나되는 길 움직이는선원 동행기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주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치료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 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가격: 전권 200,000원
크기: 4X6배판(19X26cm)

본문법회의식대전 / 총 1권: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진인
1. 입재 불공의식	○ 회양사식	1. 가정안택의식
2. 삼우제 불공의식	○ 삼우제사식	2. 사무실고사의식
3. 초재 불공의식	○ 지장사식	3. 자동차고사의식
4. 이재 불공의식	○ 보현사식	4. 선박고사의식
5. 삼재 불공의식	○ 문수사식	5. 삼재살해소의식
6. 사재 불공의식	○ 미륵사식	6. 태이영가사식
7. 오재 불공의식	○ 보문사식	
8. 육재 불공의식	○ 요음사식	
9. 칠재 불공의식	○ 관음사식	

宗 釋 梵 禪 淨 律 密 緣 起 經 藏 華嚴 法華 楞嚴 涅槃 菩薩 華嚴 法華 楞嚴 涅槃 菩薩 華嚴 法華 楞嚴 涅槃 菩薩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055)747-8350, 017-552-7350
계좌번호: 농협 801814-51-031377 예금주: 김춘길
우체국 612713-02-023012 예금주: 김춘길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호, 발명특허 0554383호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털신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특무명털신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5mm단위)

부츠(여)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자연색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자연색

지압갈창
발명특허원41435
풍신동 99% • 가격: 20,000원

宗 釋 梵 禪 淨 律 密 緣 起 經 藏 華嚴 法華 楞嚴 涅槃 菩薩 華嚴 法華 楞嚴 涅槃 菩薩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